

25년 3월 목회일정

9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22일(주일)	강단교류(김해개혁장로교회-양주동목사)
29일(주일)	문화주일특강(기독학생의 일상) (1/4분기 특별헌금)
4일(화)	노회 고시부(장로고시-사직동교회당)
10일(월)	노회 고시부(목사고시-사직동교회당)
12일(수)	노회 선교부(온천교회당)

주간소식

-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장학목적(고려신학대학원)
 3. 노회를 위한 당회 / 오늘 점심식사 후(당회실)
 4. 동래시찰회 / 24일(월) 오전 11시 사직동교회당
 5. 목사동정 / 23일(주일) 오후2:30 덕계중앙교회 헌신예배인도
 6. 성구암송 / 다음 주일부터 오전예배 시작할 때 합니다(주보7면)
 7. 가정(개안)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3월 예배봉사자 / 교회소식-고충석, 봉헌-박지영, 안내-노주혜

금요기도회

- * 일시 / 3월 7일(금) 21시부터 본 교회당
- * 대상 / 전교인(자녀들도 함께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 3월부터 수요일(저녁)기도회 대신 금요기도회로 운영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02월	03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구성본	박지영
안 내	최진언	노주혜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2.23.(제29-08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히10:22(교송)
인도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회 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가38장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신 5장(주계명/교독)
* 죄의공적고백 ↑ 제10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시편118편(3-4)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히5:5-7, 눅22:39-46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16편(1-3)
설교 ↓ 설교자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30장(3-4)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의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65장2a-3b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교회소식	오후 3시	인도 설교	양주동 목사 양주동 목사
	개 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134:2,3(교송)		
	인도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회 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 축 복 의 인 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찬송 2장		
	신앙고백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감 사 찬 송 ↑	시편100-2편(3-4)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마5:21-26			
교 리 문 답 교 독 ↓	하이델베르그105-107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50편			
설 교 ↓	설교자			
생명을 지키라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27장(2-4)			
폐 회				
* 강 복 선 언 ↓	설교자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전 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금요기도회 금요일 21시(예배당)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래(수, 20:00)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월, 19시)		
주간성경읽기		
주일	욥38-40	행 5:1-16
월	욥41-42	행 5:17-42
화	스 1-3	행 6
수	스 4-6	행 7:1-53
목	학 1-2	행7:54-60
금	스 1-4	행 8:1-25
토	스 5-8	행8:26-40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1.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성령이 같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2. 우리의 죄를 인한 고난의 잔을 마시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3. 사탄이 우리를 밀까부르듯 할 때에 주의 뜻 앞에 시험에 들지않게 기도하며 주의 손길 체험하게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1. 고신교회 안에 신실한 말씀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신학대학원을 통하여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2. 신대원이 혼탁한 시대의 상황에 잠식되지 않고 개혁신앙의 정통과 순교적 신앙을 전수하도록
3. 교수들이 교회의 교사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가지고, 바른 신학과 삶을 가르치도록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위하여

1.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설립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2. 고신대학교가 기독교인재양성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고 신실한 기독교학생들로 채워지게
3. 복음병원이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1. 타락한 세상교육에 노출된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를 통한 신앙교육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2. 부모가 자녀들을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공부나 세상을 정복하는 신앙교육을 감당하게
3. 어머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게

<p>기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3 - 캐나다개척교회 성경공부교재에서 발췌)</p>

응답받은 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성경에서 기도한 것에 대한 기적적인 응답에 관하여 읽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중 한 사람인 엘리야시대에 이스라엘백성들은 바알이라 불리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작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엘리야의 임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천지의 창조주, 야웨 하나님만이 풍작을 주실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땅에 기근이 들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경고를 기초하여 기도하였습니다.(신 28:11-14, 왕상 8:35-40)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를 멈추시고, 가뭄으로 그 땅을 황폐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야웨만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한 번 기도하였는데, 이번에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왕상17:1-18:46에서 읽을 수 있는데, 약5:16-18과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다루면서 엘리야의 예를 인용하였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들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과 같은 낙원에 거하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환상 중에 일어난 것인지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모릅니다. 그는 형언하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육체의 가시”가 그를 겸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시력에 관련된 어떤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후12:9)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한 지도자인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 3:23-28과 민20:7-13에서 그것에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모세가 요구한 것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떤 종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금하십니다. 렘14:7-12과 15:1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오늘의 암송(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이라고 합니다(WC 7.2.).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후로는 “은혜”가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혜)을 따라서 생명을 얻으나 사망에 거하느냐가 판가를 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여야 참 생명을 얻는다는 점에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창 9:6; 요일 4:20).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치명적입니다. 성경 본문(마 5:23-24)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합니다. 이는 나의 생명도 살리고, 형제의 생명도 살리는 일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생명을 누리는 일입니다.

2. 생명을 살리는 일

따라서 시기, 증오, 분노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적개심’은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와 마귀가 서로 가까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사이에 ‘적개심’을 두셨습니다. 이는 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를 빌미로 마구 미워했습니다.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이를 명분 삼아서 이방인들을 쉽게 원수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진짜 교회를 박해하는 적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역시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도 회개하도록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복음을 박해하는 종교지도자들에게도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눅 23:34).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비록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거두지 않으시는 한 회개할 기회는 늘 열려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만, 사랑을 해야 하지만 죄까지 품어서는 안 됩니다.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히 12:14). 화평함과 거룩함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둘은 상반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은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에 진정 거룩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서로 화합하는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을 때에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6계명은 생명을 살리는 명령입니다. 참 생명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 얻는 예배 안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열매를 실컷 먹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2월23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135장
성경봉독	눅22:39-46 히5:5-7
설 교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닥친 시험을
간절한 기도로 극복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날, 당신의 간절히 원하는 바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상충됨을 알고 기도하셨고, 결국 시험을 이기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1. “예수님이 당한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때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이 잔’은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고난의 잔’(마20:22)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보여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시험에 직면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큰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인해 마음의 원함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심히 무서워 떨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마26:37-38)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참 사람이시기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당면한 시험을 극복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기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 달라”는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심경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2.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닥친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결코 점잖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44) 1)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를 써서 하는 기도’는 당신이 당한 고민을 이기시려고 자신과 사투를 벌이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자 사투를 벌이신 것입니다. 2)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조용히, 얌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시험에 직면한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3) 예수님의 얼굴에

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매우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주님이 당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매우 열정적으로 기도하심으로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요란할 만큼 큰 소리를 내어 울며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원을 올리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히5:7) 마음이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결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고, 자기 백성에게 안식의 나라에 들이실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집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백성들이 야웨 하나님을 참되고 살아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며,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야웨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3.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당면한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당면한 시험이 있었고, 그들 역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40, 46) 제자들이 당면한 시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은 사탄이 하나님께 청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눅22:31-32)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이 하겠다’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으짐)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기도하지 않았고,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탄이 자신들을 밀까부르듯이 가지고 놀 때에 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을 아셨고, 사탄의 시험을 아셨기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의 시험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사탄은 우리를 밀까부르듯이 가지고 놀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슬픔과 고민에 빠져 잠들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우리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이기고 형제를 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고 증거합니다.(43) 2)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롬8:26) 3)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을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요16:23)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2월23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85장
성경봉독	마 5:21-26
설 교	생명을 지켜라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1. 생명과 관계

생명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보는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생명 자체로 의미를 둡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을 살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창 2:7).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관계’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지 호흡만 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은 존재가 됩니다. 에덴동산에서 사람은 언약에 순종하면 생명에 거하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거하